2017
vol.200 | 3 March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참여하여 이끌어낼 때

테마기획
미술 작품으로 본 시각장애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 터 뷰
201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된
광주 세광학교 김수연 학생

포 커 스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들꽃

04 | 시선집중 – 참여하여 이끌어낼 때 / 강완식(음성정보팀장)

06 | 테마기획 – 미술 작품으로 본 시각장애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08 | 인터뷰 – 201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된 광주 세광학교 김수연 학생

10 | 포커스 –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내 각시 예소리 / 이진규(시각1급_경기도 의정부시)

13 | 월드 리포트 –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선보이는 시각장애인 '댄 만시나'
– 영국 경찰,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총으로 오해해 테이저건 쏴

14 | 뉴스앨범 – 문체부 · 한시련,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SK네트웍스, '1004 인형 만들기 프로젝트' 통해 따뜻함 나눠
– 노원합창단, 2017년 활동 시작!
– 한시련 광주광역시지부, 귀로 보는 인문학 강의 열어
– 토토즐 원데이교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진행

16 | 후원안내

voiceye.com VOICEYE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자라는 식물을 야생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야생화의 우리말 표현은 '들꽃'입니다.

'들꽃'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 ⠤⠤ ⠤⠒

들 꽃

읽기 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	⠉	⠙	⠑	⠋	⠛	⠓	⠊	⠚	⠅	⠇	⠍	⠝	⠕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참여하여 이끌어낼 때

강완식(음성정보팀장)

지난 2016년 12월 9일 우리는 참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지난 연말 소위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정 농단 사건과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데는 모두 참여의 힘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이다. 불의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 학생과 국민의 힘으로 4.19 혁명을 이끌어 냈고, 군사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맞서 많은 학생과 국민의 피로 6.10 민주항쟁을 통하여 6.29 선언을 이끌어내어 전두환 정권 퇴진을 이끌어 내는 등 역사의 분수령과 변곡점에서 참여의 힘을 보여주었다.

올 2017년 12월 20일은 본래 다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나 국정 농단에 이은 탄핵 등 현 정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조기 선거가 유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선거 캠프가 차려지는가 하면 선거 공약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선거 시류를 잘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예가 많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관련 센터 건립(이룸센터), 장애인 연금제도 실시, 활동지원제도 실시, 더 나아가 현 정권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법, 수어법 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장애인 공약을 약 10여개 제시하였으나 결국 불완전하나마 이루어낸 것은 지속적인 관련자의 참여와 노력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수어법 통과이다. 이 두 법안 또한 국회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였고 그 때마다 많은 관련자들의 투쟁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시각장애인도 그러한 기억이 있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5.25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시각장애인 총 궐기를 통하여 3개월 여 투쟁 끝에 의료법 개정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낸 바가 있다. 또한 복지 예산 지방 분권에 맞서 2,000여명 이상이 투쟁에 참여하였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힘을 합쳐 해결의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참여의 힘을 거의 상실한 것 같다. 최근 들어 시각

장애인의 정책이나 법령 제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의 장과 더불어 때로는 집회 등이 개최되는데 자발적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야만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2016년에 시각장애인계를 강타한 활동지원시간 축소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각장애인이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7월 26일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겨우 겨우 참여를 요청하고야 200여명이 참석하여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우리 고유의 문자인 점자법 시행령 공청회에는 10여명이 겨우 참석하는가 하면, 정보접근성 토론회 등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참여율이 한 자리 수에 미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다 하여 전화로만 혹은 글로만 불평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한 익명성에 기대어 투덜대기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2017년이야 말로 우리의 숙원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도출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물실호기의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 후보가 되기 위하여 잠룡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권 교체를 위한 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선심성 공약이나 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실을 따 먹느냐 못 따 먹느냐 하는 것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참여하여 익숙해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은 선거판에서 보면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루어낸 것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고 수어법이다.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우선 과체를 찾아내어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시각장애인도 그 가족을 포함하면 거의 100만에 이른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한 것은 불과 50여 만 표에 불과하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한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뜻이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다.

미술 작품으로 본 시각장애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미술은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진
시각 예술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만드는 미술 작품은 어떨까요?

모네와 드가, 이 두 화가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두 화가 모두 생전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네는 백내장으로 수정체가 탁해져서 시각의 예민함이 감퇴하였고, 드가는 황반변성으로 중심부 시력이 손상되어 말년에는 거의 실명에 다다랐는데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미술로 채웠던 것처럼 국내에도 열정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미술 작품으로는 사진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빛과 어둠을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느끼며, 피사체를 손으로 더듬기도 하고 보조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29일에는 시각장애인 사진작가의 데뷔 사진전시회가 서울 삼청동의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미술은 맹학교의 미술 교과 수업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국 맹학교에서는 미술 교과 수업 시간에 외부 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모아 기획전 등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청주에 위치한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거주시설인 광화원의 아이들이 '2015-2016 광화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우리 모두 나무!'전이 4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우리들의 눈'갤러리에서는 20년 동안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우리들의 눈-길'전이 3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조소, 회화 등의 미술 영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희망하고, 또 실제로 미술 전공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미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시각장애인 미술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은 미술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과 함께 미술 활동을 진행한 많은 전문가들은 시각장애가 미술을 하는데 오히려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된

광주 세광학교 김수연 학생

서울대학교 17학번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 영한번역가의 꿈에 한 발 다가선 김수연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17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수연입니다. 저는 생후 4개월에 발견된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광주 세광학교에 입학해 이번에 졸업과 동시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각장애인 으로서 공부하는데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일까요?

저 말고 다른 시각장애인 수험생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것은 아무래도 교과서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 교과서는 제작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작이 된 뒤에도 점자교과서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수능을 보는데 약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과서 제작 시간, 교과서를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언젠가 우연히 일본의 경제전문가 니시무라 아키라의 'CEO의 다이어리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시간 활용과 관련된 책인데 시간 리스트럭처링(혁신 전략)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쓰고 차례대로 처리하면서 시간과 시간 사이에 짧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넣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공부를 할 때 이 책에 나온 시간 리스트 럭처링 방법을 사용해 공부의 양을 나누었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어떤 전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부로 1학년 때는 주제 탐구 세미나, 전공 설계 등 자유전공학부만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전공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 전공은 2학년 때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때 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단일 전공을 선택해도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유합해서 나에게 맞는 전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분야로 전공을 선택하고 싶으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중에 영한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성악을 공부했었는데, 어려운 외국어 가사로 된 성악곡들을 부르고 공연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진로라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김우열 번역가의 '나도 번역 한 번 해볼까'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번역가가 되기 위한 방법과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법 등 출판번역가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때 번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영한번역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영한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14년에 정인욱 복지재단의 주최로 영국에 한 달 동안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었고, 영국 가정 체험, 여행 등은 영어권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어 주었는데요. 제가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장래희망이 영한번역가이기 때문에 졸업 후 가장 원하는 일은 소설, 시, 에세이 등 문학 작품들을 번역해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의 번역본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원문 문장을 두고도 다각도의 해석을 하고 있었고, 번역본마다 미묘한 전달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배우고 또 졸업 후에 번역을 하게 된다면 영어적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면서도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푹 빠져 읽을 수 있도록 독창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착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6번째 착한 목소리 오디션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SC제일은행 본점에서는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백과사전'이라는 주제로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즌6'의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백과사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1만 3천여 명의 착한목소리를 가진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꿈 백과사전은 이번에 선정된 120명의 착한 목소리를 통해 '똑똑한 직업, 건강한 직업, 따뜻한 직업' 등 8개의 주제로 구성된 100개의 직업에 대한 소개와 시각장애 청소년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대학교 전공과목 다섯 가지를 함께 소개하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월 23일에는 착한 목소리로 선정된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오디오북 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성우 서혜정 선생님의 특강과 함께 발성법을 배우는 참가자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백과사전'은 오디오북과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 4월 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내 각시 예소리

이진규(시각1급_경기도 의정부시)

'문화 따라잡기' 부문에 굼떠서 늘 뒷북이나 치는 나에게 컴퓨터라는 물건이 생긴 것은 남들보다 한참 늦은 십년 전쯤이다. 친구가 쓰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내게도 컴퓨터라는 물건이 생겼다. 기계치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는 나에게 처음 그건 네모난 철상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배우면 "읽기와 쓰기"가 완전 해결된다는 친구의 설득은 내 귀를 솔깃하게 했고 내 흥미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내가 컴퓨터에 눈을 뜨기까지의 중심에는 나의 예소리가 있다. 예소리로 말하자면 컴퓨터 안에 살면서 나의 읽고 쓰는 작업을 대행해주는 스크린리더 아가씨다. 그 목소리가 하도 예쁘기에 예쁜 소리를 줄여 예소리라고 부르는 건 순전히 내가 만든 신조어다. 예소리를 만나기 전만 해도 예소리 따위에 대한 나의 관념은 무척 편협했다. 기껏해야 코맹맹이 소리나 내는 전자음에 불과하리라는 거였는데, 막상 들어보니 웬걸, 발음은 또랑또랑 하고 목청은 사근사근한데다 곰살맞기까지 하니 얼마나 예쁘고 정이 가던지!

예소리를 사들여 앉히니 철상자였던 것이 어느새 보물상자로 변신하는 걸 보면 예소리는 분명코 마법사 아가씨다. 내가 예소리와 사귄 지 석 달 만에 그에게 내 영혼까지 도둑당한 것만 봐도 알만하다.

또랑한 목소리, 정확도 높은 발음, 명령에 충실한 대필까지 비서로서의 자질을 두루 갖춘 예소리는 고품격의 재원이다. 그가 내 비서로 인연이 닿은 것은 하늘이 놀랄 만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여 주로 동생들을 통해 읽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들의 불평불만의 투정을 듣기 일쑤였다. 그에 비해 주야를 불문하고 내 요구에 아무 불평 없이 즉각 응해주는 예소리야 말로 내겐 천사와 같은 존재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것 같지만 손에도 눈에도 잡히지 않고, 오로지 입과 혀로만 존재하는 예소리를 나는 내게 과분한 한 사람의 귀인으로 인식하며 산다. 그와 날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나는 그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으나, 이미 때를 놓친 마당. 급기야 내 잠자리마저 안방에서 예소리가 독수공방하는 골방으로 옮기는 법석까지 떨어가며 예소리와의 짙은 동거에 들어갔다. 실제로 아내의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그런 것이 예소리에 대한 나의 열애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무시로 배꼽만 꾸욱 누르면 수줍은 듯 살포시 돌아 누우며 한결 같이 향기로운 입술로 내게 말을 거는 예소리는 이제 내 여비서이자 내 둘째 각시다. 예소리와 인연이 닿은 건 참으로 행운 이상의 보너스다. 딱 잘라 말해 늦복이 왕창 터진 것이다.

예소리를 만나기 이전, 점자에만 매달려 살던 때를 나는 나의 원시시대로 규정하거니와 그 어두운 시기를 반추하면 억장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알고 싶고, 읽고 싶고, 쓰고 싶은 의욕이 불끈거려도 그때는 아직 불편일색의 암흑기였으므로 오로지 안분지족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일체의 욕구들을 꾹꾹 눌러 잠재울 수밖에 없었으니, 그 고통이 차라리 허기보다 더한 형벌임을 아는 건 당사자뿐일 게다. 그랬다, 오랜 동안, 내 정신적 식욕은 대부분 억제당하거나 포기해야 했으므로 나의 갈증은 자못 깊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예소리의 돌연한 등장은 실로 귀로 보는 소리의 빛이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단편적인 편식으로 고착된 상식의 오류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나를 새로이 재건축하고, 항상 독서에 목마른 나에게 수만 권의 서적이 쌓인 도서관을 도처에 열어주어 나를 문화인으로 개화시켜주었다. 예소리를 통해 얻는 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의 난제로 꼽히던 자필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시켜준 것은 실로 획기적이고 감동적인 성취다. 이제 나는 예소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완벽한 그의 포로다.

어쩌다지만, 내 무분별한 터치에 예소리가 돌연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겁도 나고 화도 난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평정심을 잃고 허둥거린다. 그 느닷없는 멈춤 뒤에 찾아오는 적막함이야말로 온 세상이 서버린 듯 아득함의 절정이다. 그 침묵이 길어져 며칠씩 가는 날이면 내 일상도 온통 헝클어지고 마음에도 균열이 생긴다. 종극에는 무인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 허전하여 입맛까지 잃고 끼니를 거를 정도다. 이제 예소리는 나와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반려자이자, 확실한 연인임을 선언한다.

어느 날 나는 지인들에게 어느 잡지사에 응모한 내 글이 당선되었다는 수상 소식을 자랑삼아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들은 한결같이 "컴퓨터 덕에 살판났네"였다. 사실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요새 예소리 덕에 일상의 판도가 뒤바뀌리만큼 살판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만남이 다소 늦은 바 있으나, 고희를 눈앞에 둔 이 나이에 이렇게 신통하고 깜찍한 천생배필을 만나 문화인의 대열에 당당히 끼어 눈을 뜬 듯 만사여의하니 세상에 기죽어 살 일이 도대체 무엇이랴. 진정 고백하느니, 예소리의 향기로운 입술로 하여 나는 내 생의 늦은 계절에 다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선보이는 시각장애인 '댄 만시나'

미국의 29세 청년인 댄 만시나(Dan Mancina)는 시각장애인으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 남아있습니다.

만시나는 퇴행성 유전병인 색소성 망막염으로 만시나는 13살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즐겼던 만시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스케이트보드를 꾸준히 타보기로 했고, 흰 지팡이와 장애물에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이용해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총으로 오해해 테이저건 쏴

지난 2월, 영국 맨체스터의 경찰들은 중년 남성이 총기를 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레븐슘(Levenshulme)역으로 갔는데요. 실제로 중년 남성이 들고 있었던 것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접어 둔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였습니다.

경찰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각장애인에게 무기를 내려 놓을 것을 요구했고, 영문을 모른 시각장애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5만 볼트의 테이저건으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피 칸은 "경찰 정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는 테이저 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 경찰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문체부 · 한시련,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총 2부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실태 조사 및 교과용 도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2부에서는 점자출판 시설 지원 기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체부와 한시련은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점자법' 시행령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SK네트웍스, '1004 인형 만들기 프로젝트' 통해 따뜻함 나눠

SK네트웍스에서 2017년 업사이클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04 인형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물건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SK네트웍스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형 바디와 재고의류 원단, 반짇고리, 가이드패턴, 패브릭 마커 등이 들어있는 인형 제작 키트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쉽게 인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찍은 영상도 함께 제공했다.
선정된 우수작은 2월 6일부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전시가 끝난 후 만들어진 인형은 맹학교 및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노원합창단, 2017년 활동 시작!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노원합창단이 2017년 활동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노원합창단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가곡, 동요, 민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전문 지휘자와 반주자의 지도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수업은 매주 1회씩 모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원합창단은 1년 동안 지도를 받으며 지역 사회 행사 등에서 공연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2017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노원합창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시련 광주광역시지부, 귀로 보는 인문학 강의 열어

지난 2월 2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에서는 2017년 귀로 보는 인문학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의 '웃음을 통한 행복한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인문학 강의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은 한바탕 울고 웃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강의로 채워질 귀로 보는 인문학 강의는 매 월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토즐 원데이교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진행

지난 2월 11일과 2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와 함께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은 에센셜 오일의 다양한 향을 맡아보고, 섞어보면서 나의 느낌과 어울리는 향기를 찾아냈는데요. 후각에 집중해 자신과 어울리는 좋은 향기를 만들기 위한 참가자들의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참가자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그니처 향수를 만들며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일까 생각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기부자

이*원,김*우,김*영,김*호,송*애,김*호,남*호,김*화,윤*지,윤*지,김*경,강*린,송*욱,강*은,복*분,이*름,김*옥,조*경,권*석,이*옥,류*길,조*묵,강*성,김*식,최*열,최*식,민*용,양*태,서*범,김*진,이*득,양*현,유*환,박*춘,이*민,김*섭,한*명,이*록,조*호,김*훈,장*길,고*현,김*경,노*진,이*영,황보*광,이*화,조*희,한*영,이*택,최*범,최*애,이*빈,손*린,김*수,이*국,이*만,이*국,이*천,채*정,이*비,김*영,차*우,남*영,김*옥,남*현,홍*길,홍*순,홍*주,김*원,김*슬,마*민,이*원,박*옥,이*지,안*슬,임*우,임*준,이*지,박*형,박*재,박*정,이*주,전*구,윤*정,황*준,황*,고*영,박*빈,박*결,박*서,박*율,김*형,신*진,진*인,박*래,김*우,박*순,정*홍,김*수,유*식,복*주,남*학,왕*택,고*철,황*기,손*섭,하*식,강*민,임*윤,윤*채,김*형,김*배,이*우,권*섭,김*성,진*구,이*우,정*현,김*원,심*봉,주*식,염*희,최*영,김*자,한*숙,주*호,주*무,주*호,김*미,홍*수,김*현,김*례,손*진,송*림,김*춘,노*택,노*영,김*정,이*희,이*용,손*근,손*경,최*탁,윤*현,황*화,윤*자,김*희,신*섭,복*규,김*,이*민,신*규,박*철,최*옥,이*호,이*원,이*인,이*례,채*란,박*수,박*열,박*덕,구*숙,이*영,이*혜,정*운,김*란,주*건,조*경,이*희,홍*혁,이*규,김*숙,김*준,한*자,권*영,박*호,김*름,김*수,김*현,김*진,이*진,김*현,박*수,이*훈,이*옥,박*희,박*진,박*진,유*근,김*현,홍*녀,김*준,허*애,이*숙,오*환,오*석,오*철,강*애,김*형,채*석,김*태,이*희,이*민,손*숙,박*영,유*하,송*정,박*용,정*나,심*미,허*라,한*수,임*정,정*준,이*,임*억,박*연,박*희,최*기,황*윤,정*숙,김*식,신*호,현*환,현*언,윤*선,김*옥,김*길,김*택,박*석,이*아,주*식,김*규,김*완,박*영,허*진,노*향,이*진,박*현,김*수,정*화,이*식,황*정,류*택 ,강*창,김*옥,박*석,박*재,조*길,김*택,김*,유*숙,신*경,심*근,홍*현,김*순,김*길,박*희,전*복,이*혁,신*호,강*현,공*주,이*희,이*진,이*희,강*훈,박*석,진*은,이*우,유*수,엄*식,이*근,전*녹,장*석,이*희,조*진,차*국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 금 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